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강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쾌도난마 스페셜	25 아침야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돌격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40 다섯남자의 어머니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뉴스와이드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포초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2013 브리티시 오픈	00 브리보 멋진 인생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여름방학 특선 앙코르 《공부하는 인간 호모카데미쿠스》		00 SBS12뉴스 20 TV속의 TV	30 KBC열린토론회(재)
1 10 텃밭평평(재)	00 KBS 뉴스 7 10 문화산책 포플러	10 세계는 지금(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강원》
2 20 직언직설	00 콘서트 필드(재) 40 남도지오그래피(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는대(재) 35 후토스 미니니(재)	00 MBC 3시 뉴스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10 우리야기가 달라졌어요(재)
3 30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원전정복	00 최강함체 믹스마스터(재) 30 TV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안녕 저우야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4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 5 20 동물과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뽀뽀뽀방 구조대 2 30 여름 특선다큐 《우리가 풀었던 인도양 여행》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새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5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세상의 모든 여행 《박용우의 블루 크로아티아》	05 세네포트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시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
7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02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구말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8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00 가요무대 55 베이스볼 매거진 야호	00 월화드라마 《굿 닥터》	00 SBS 대기획 《황금의 제국》
9 00 명랑해결단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 공감다큐 《그 곳》	2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0 10 이영돈PD 먹거리 X파일(재) ①:2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네트워킹 특선다큐 《이현철의 울렛 뮤직》	30 해외특별기획드라마 《초한지》	20 MBC 뉴스24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MBC 가요베스트 ①:55 바비킴·이루마의 TV 예술무대	50 나이트라인 ①:10 SBS골프

EBS

06:00 건강학 아침	09:40 텃밭이야기	14:05 EBS 스페이스 공감1	18:45 미앤미 로보트
06:10 한국기행 (서천)	09:55 지구를 지켜라	15:00 꼬마기사 마이크	19:00 EBS 뉴스
06:30 나의 성공비결	10:10 세계대미기행	15:10 공중짜짜 라라	19:25 지식채널e(재)
07:00 곤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캐나다 1부 -명 끝 반도, 가스페지)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9:30 달라졌어요
07:15 미앤미로보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마이의 모험	20:20 요리비전
07:30 마이의 모험	11:20 부모	16:00 당동맹 유치원 1~2(재)	20:50 세계대미기행
07:45 뽀뽀뽀방 로로	(특명 여행을 떠나서 사랑의 처방전)	16:20 캐니얼	《카리브해의 보석, 쿠바 1부 -신대륙의 첫 발자국, 바리코야》
08:00 당동맹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뽀뽀뽀방 로로(재)	21:30 한국기행 (무안편)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인	12:10 EBS 다큐프라임	16:45 숲 속 친구 파파올라(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35 로보가 풀리	(한국의 강)	17:00 방귀대장 뽀뽀(재)	《한국의 강》
08:50 숲 속 친구 파파올라	13:0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7:10 로보가 풀리(재)	22:45 하늘에서 본 한반도
09:00 방귀대장 뽀뽀	13:2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17:25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23:15 다10+
09:15 코코몽2	13: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7:4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24:05 더버블의 테스트
09:30 캐니얼		18:30 곤	

EBS플러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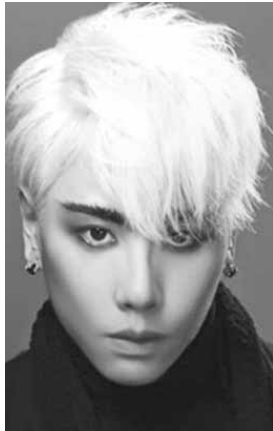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11:40	《강승희의 윤리와 사상》
00:50 내신 6강	《수학상》 12:30	최대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1:40	《지리》 13:00	탈스런 《박복의 사회문화》
02:30 포스	《회법과 작문》 14:00	인터레 수능
03:20	《독서와 문법》 15:00	《독서·문법·회법·직문(A)》
04:10	《수학 I A형》 16:00	《독서·문법·회법·직문(B)》
05:00	《수학 I B형》 17:00	기술올라 《수학 II & 작문 & 기백》
05:50	《미적분과 통계기본》 18:00	인터레 수능 《독해(B)》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8:00 EBS 수능완성	《국어(A형)》
07:30	《영어특해의 기본(1)》 19:00	《영어(A형)》
08:20 틱스런	《Basic Grammar》 20:00	《영어(B형)》
09:10	《법과 정치》 21:00	《영어(C형)》
10:00	《동아시아사》 22:00	《올리 I》
10:50	《경제》 23:00	《적분과 통계》
	《강봉균의 한국지리》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사이언스 드라마(미래를 보는 소년)
07:30 EBSe 생활영어	16:2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08:00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08:30 주택 관리자 시험대비강좌	17:0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9:10 중학 1학년	《국어①》 17:20
09:50	《수학①(상)》 18:00
10:30	《수학①(하)》 18:40
11:10	《역사①》 19:20
11:50 중학 2학년	《영어②-2》 19:50
12:30	《문학②》 20:00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20:40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21:20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22:00
15:10 생활이 생생!	22:40
15:20 한자교육드라마(어린이 손자범법)	23:20

“강렬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었어요”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화려하게 컴백... 죽음 역 가수 박효신



지난 3일 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의 무대 뒤편. 뮤지컬 ‘엘리자벳’의 공연을 끝낸 출연·제작진이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어린 표정으로 하나, 둘 내려왔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극장의 에어컨은 꺼지고 열대야의 기세가 분장실까지 스며들었다. 이날 ‘죽음’ 역으로 무대에서 선 가수 박효신(32·사진)도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닦아냈다.

“나아졌더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난달 26일 개막 공연 때보다 몸이 풀린 것 같다는 말에 박효신은 “폐막쯤 되면 정말 ‘미친’ 죽음이 돼 있을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이 작품과 역할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사실 개막 때만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역할과 일체가 된 느낌이라구요. ‘죽음’에 몰입하다 보니 스스로 섬뜩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연예병사로 군 복무를 할 때야 라디오 DJ도 하고 연기도 하며 다양한 분야를 접해봤지만, 민간인 박효신은 누가 뭐래도 가수다.

그런 만큼 지난해 9월 전역 후 아직 음반을 발표하지 않은 그가 뮤지컬을 먼저 선보인다고 했을 때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는 올해 초 보러 간 ‘오페라의 유령’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데뷔 시절 멋모르고 ‘락 헬터’에 출연한 이후 13년간 잊고 있었던 뮤지컬 무대였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저 커튼콜이 끝났는데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계속 멍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공연을 본 이들 만에 그는 다시 ‘오페라의 유령’의 극장을 찾았다. 단순히 감상을 하러 가자는 마음가짐은 이미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봐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 무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가서 보자는 생각이었죠. 오리지널 공연팀의 브래드 트리어가 연기한 랜탈

은 정말 감동했어요. 저런 무대에서 나도 노래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 ‘죽음’을 해보자는 제안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룹 JYJ의 김준수, 뮤지컬 배우 전동석과 번갈아 맡는 역할이었다.

물론 뮤지컬 무대에서 만나는 박효신도 반갑지만, 그의 목소리만을 오롯이 담은 음반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터.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을 올해 안에 분명 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틈틈이 써둔 곡들이 있어요. 몇 곡인지 셀 수는 없는데, 추리면 꽤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보려고요. 사랑 얘기도 넣고 주변의 삶, 사람 얘기도 조금씩 꺼내서 해보려고 해요.”

이날 박효신은 오전 7시 일과를 시작해 오후·저녁 공연을 모두 소화했다. 당장이라도 깨닫게 될 무대 분장을 지우고 어디

라도 가서 드러눕고 싶은 시간. 그런데도 그는 “오즘 삶 자체가 만족스러워졌다”며 편안하게 말을 이었다.

지난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3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까지 하게 된 그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상황이 제게 독(毒)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경험이 악이 된 거죠. 지금은 그저 더 힘내서 멋진 공연을 보여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잃은 게 아니었더리구요.”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 소개하고 싶다”

가그맨 이승환 요리 프로그램으로 활동 재개



가그맨 출신 사업가 이승환(37)이 요리 프로그램으로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이승환 측은 “이승환이 매우 끊임없이 전 11시 방송되는 MBC ‘파워 매거진’의 코너 ‘맛있는 여행’을 통해 제철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박준형, 정종철과 함께 ‘갈갈이 삼형제’로 활동한 그는 지난 10년간 다수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며 방송 활동에 소홀했다.

이승환은 “공백기 동안 다양한 종류의 외식 체인 사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요리 실력이 늘었다”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음식 레시피와 외식 사업의 노하우를 담은 요리책도 집필하고 있다. 아빠가 아이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는 ‘아빠의 사랑 레시피’(가제)로 9월 초 출간할 예정이다.

요리책에서 그는 돼지안심과스타, 안심셀러드, 통성검살스테이크 등 자신이 운영하는 퓨전 레스토랑 바카데813의 메뉴 레시피도 공개한다. 그는 “책의 인쇄 전액을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 (음 6월 29일 癸卯)

子	36년생 과잉 확신이 오류를 낳게 한다. 48년생 상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한다. 60년생 필히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72년생 넘치려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84년생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61, 15
丑	37년생 공교롭게도 잘 풀려 나가는 모습이다. 49년생 상호간에 책임이 있음을 알라. 61년생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73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 85년생 조바심을 버려야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05, 47
寅	38년생 정보를 필히 참고하는 것이 낫다. 50년생 가로 막는 것이 보이거든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답답하더라도 잡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다. 74년생 주관적 심리를 배제하고 실상에 충실함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8, 22
卯	39년생 관공을 뒤집어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51년생 의지가 약하다면 재물이 나갈 수도 있으니라. 63년생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 75년생 만류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0, 53
辰	40년생 교연영색에 현혹될 수도 있겠다. 52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64년생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철저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76년생 상대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이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32, 71
巳	41년생 파격적인 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님을 알라. 65년생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심적 갈등이 클 것이다. 77년생 일시적인 충동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68, 09
午	42년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54년생 개선하려다가 오히려 실기할 수다. 66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78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4, 57
未	43년생 일시적인 현상을 차치하고 큰 흐름에 비중을 두자. 55년생 의문을 갖고 진지하게 문제 제기하는 모습이다. 67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하느니라. 79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시는 길목이다. 행운의 숫자 : 19, 36
申	44년생 형국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56년생 태연자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68년생 시종일관 신경 써야 빈틈이 없었다. 80년생 전례대로만 행하면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2, 44
酉	45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57년생 스스로 우려나오는 마음으로 행해야 의미가 있다. 69년생 한결 같아야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81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6, 75
戌	46년생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58년생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답안하다. 70년생 술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82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함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3, 60
亥	47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빈틈이 보이리라. 59년생 감정을 노출하지 말고 포용해 줌이 바람직하다. 71년생 승리를 트이게 하는 활로가 개척 될 것이다. 83년생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속이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6,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복달임 대표주자 '민어'



요리비전(EBS·오후 8시20분)은 여름이 왔다는 신호를 알리는 ‘복달임의 진객’ 민어, 삼복에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이기고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우리 민족의 풍습, 복달임. 그 복달임 음식의 대표주자, 민어, 한여름, 제철 맛은 민어를 만나러 신안으로 떠나본다.

옛날 신안 태이도란 섬에서는 파시가 열렸었다. 여름 한철, 마치 신기루처럼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민어 파시. 많은 배가 쪽 늘어 서 삼과 육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아직도 그곳 사람들에게 민어는 여름나기의 필수 음식이다.

탕, 전, 찜은 물론이고 부레, 껌질에 내장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맛있는 민어 요리를 소개한다.

막말하는 '남편'이 고민인 주부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 2·밤 11시10분)=스타와 함께 하는 여름특집 두 번째. 지난주 그룹 f(x)와 조정지 특집에 이어 이번주에는 그룹 ‘제국의 아이들’과 투게월 김예림이 출연한다. 제국의 아이들 광희는 함께 출연한 김예림의 실제 나이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예림은 “광희 선배님이 나이를 묻길래 20살이라고 했더니 엄청 놀라더라”며 광희의 막말을 폭로했다. 광희는 “처음 김예림을 보고 25살 인줄 알았다. 20살 인줄은 몰랐다”고 또 한번 깨알 막말을 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날 녹화에는 자신에게 막말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30대 주부가 출연했다. 고민 주인공은 “남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못생겼다, 살이 쪼서 골러가겠다며 막말을 해댄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재활용창작음악단 '복어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누리불다 문화지역아동센터. 이곳 아이들 곁엔 늘 다채로운 음악이 함께 하고 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악기 해금부터 통기타까지, 아이들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 발산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악기가 있다. 바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만든 창작 악기다. 떨어진 바퀴, 찌그러진 냄비, 빈 페트병 등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려진 물건들도 센터 아이들의 손을 거치면 화려하고 멋진 악기로 재탄생한다. 아이들은 재활용창작음악단 ‘복어패’라는 이름으로 지역 곳곳에 공연을 다니면서 무엇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